

이자 가계發 위기설 현실화 되나 폭탄

주택대출금리 6주연속 급등... 최고 금리 8.2% 올라 2억원 대출자 年이자 부담 한달 반새 100만원 불어

은행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6주 연속 급등하면서 서민 대출자들에게 '이자 폭탄' 경보가 발령됐다.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어 내년 주택경기가 둔화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달 반새 최고 0.52%P 급등=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이번 주 주택대출 금리는 지난주 초에 비해 0.07%포인트 상승한 6.44~8.04%를 기록하며 우리·신한·기업은행에 이어 최고 금리가 8%를 넘어섰다.

기업은행의 경우 이번 주 금리를 지난 주 초에 비해 0.09%포인트 인상한 6.70~8.19%로 고시했다. 지난달 12일에 비해서는 대출 최저 금리가 6주간 무려 0.52%포인트 급등했다.

농협은 지난주 초에 비해 0.06%포인트 오른 6.49~8.21%로 최고 금리가 8.2%대로 진입했고 연말까지 우대금리를 폐지한 우리은행은 0.06% 상승한 7.98~8.18%로 최고 금리가 8%대에 육박했다.

신한은행은 6.78~8.18%로 0.06%포인트 상승했으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7.08~7.78%와 6.88~7.86%로 0.04%포인트씩 올랐다.

은행권의 주택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CD 금리는 21일 현재 5.78%로 지난 달 12일 이후 0.43%포인트 급등하면서 2001년 5월30일 이후 6년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은행에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린 경우 그 이후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급등하면서 연간 이자 부담이 한 달 보름 전에 비해 100만원이나 불어나게 됐다.

◇가계發 위기설도 부상=대출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대출자들이 이종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연습뉴스

23일 한국은행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은행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10.98%로 작년 말의 연 10.94%에 비해 0.04%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0월 말까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연 4.86%에서 5.35%로 0.4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권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5.50%에서 연 6.54%로 1.04%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의 대출 확대에 밀려 저축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한 반면 증시로 이탈하는 자금을 붙잡기 위해 예금 금리는 큰 폭으로 올려야 했다"며 "저축은행들의 예대미진이 크게 악화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이후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저축은행들도 대출 금리 인상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연습뉴스

저축은행들이 올 한 해 예금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대출 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1월 이후 시장 금리가 급등하자 저축은행들도 서서히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3일 한국은행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은행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10.98%로 작년 말의 연 10.94%에 비해 0.04%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0월 말까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연 4.86%에서 5.35%로 0.4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권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5.50%에서 연 6.54%로 1.04%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의 대출 확대에 밀려 저축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한 반면 증시로 이탈하는 자금을 붙잡기 위해 예금 금리는 큰 폭으로 올려야 했다"며 "저축은행들의 예대미진이 크게 악화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이후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저축은행들도 대출 금리 인상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연습뉴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살리기' 구호에 맞춰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각 업계는 새 정부의 정책 골간이 세워질 정권 인수와 출범과 맞물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애로와 건의를 작·간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을 찾는 데 분주하다.

전자업계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산·학·정 협력 모델을 통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쟁에서의 지속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수종 사업 발굴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의료, 바이오IT 등 신수종 사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규제 완화, 시장진입 및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정부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도 전자업계의 요구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은 만큼 시장경제를 중시한 합리적인 건·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과 수도권 구분 없이 시행되는 주택·토지투기금지 등도 지역 사정에 맞게 적절히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중소기업계는 이명박 당선자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뒤쫓길 바라고 있다.

연습뉴스

産銀 민영화 급물살 탈 듯

이명박 당선자, 투자은행부문 분리대상 거론

대우조선·현대건설 매각도

17대 대선이 끝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포함돼 있는 국책은행 민영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한 강연회에서 "임기 중 20조~30조원의 기금을 만들어 그것을 갖고 중소기업 자금문제 하나만은 해결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국책은행을 완전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떼어내 남기고 꼭 필요한 정책금융 부문만 국책은행에 남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이 가장 유력한 분리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업무 가운데 시중은행과 중첩되는 우량 기업에 대한 단기 담보대출과 단기 회사채 인수 등도 역시 분리 가능한 부분이다. 이 경우 대우증권 등 민영화 대상이 당선자의 언급대로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에서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국책은행은 아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매각이 어떻게 추진될지도 관심거리다. 예보는 현재 우리금융지주 지분 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3%는 일괄 매각(블록세일) 방식으로 조속히 팔고 나머지 50%는 전략적 투자자를 찾아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매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건설 등의 매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대우조선이나 대우증권의 우선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중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대우조선이 먼저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연습뉴스

저축은행도 대출금리 인상

11월 이후 시장금리 급등에 속속 합류

저축은행들이 올 한 해 예금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대출 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1월 이후 시장 금리가 급등하자 저축은행들도 서서히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3일 한국은행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은행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10.98%로 작년 말의 연 10.94%에 비해 0.04%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0월 말까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연 4.86%에서 5.35%로 0.4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권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5.50%에서 연 6.54%로 1.04%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의 대출 확대에 밀려 저축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한 반면 증시로 이탈하는 자금을 붙잡기 위해 예금 금리는 큰 폭으로 올려야 했다"며 "저축은행들의 예대미진이 크게 악화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이후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저축은행들도 대출 금리 인상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연습뉴스



기아차, 여수엑스포 성공 기원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와 함께 하는 여수 테마여행' 이벤트에 응모한 10가족이 엑스포 성공 기원을 위한 테마여행 출발에 앞서 23일 여수엑스포 홍보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광주점 제공)

집·공장 근처에도 장례시설 허용

복지부 입법 예고... 330만㎡ 이상 신도시 화장·봉안시설 의무화

앞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여겨 극심한 '남비현상'을 보이는 일반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장사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해당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2008년 1월14일까지 20일 간 입법에 고한다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예상 화장 수요를 고려해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장사시설 운영에 관해 지역주민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입지제한 완화를 통한 장사시설 확충 촉진과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주민 생활지역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

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장 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신분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재한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립 모두 120cm(10cm×12cm)이하로 설치하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 가능하지만, 수목장립은 산림경관 훼손방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다양한 방법과 재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목장립의 표지는 산림보호와 경관유지를 고려해 나무에 매다는 방법을 제한된다.

연습뉴스

"R&D 투자지원 확대·규제 완화"

산업계 "차기 정부에 이것만은 꼭..." 요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살리기' 구호에 맞춰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각 업계는 새 정부의 정책 골간이 세워질 정권 인수와 출범과 맞물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애로와 건의를 작·간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을 찾는 데 분주하다.

전자업계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산·학·정 협력 모델을 통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쟁에서의 지속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수종 사업 발굴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의료, 바이오IT 등 신수종 사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규제 완화, 시장진입 및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정부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도 전자업계의 요구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은 만큼 시장경제를 중시한 합리적인 건·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과 수도권 구분 없이 시행되는 주택·토지투기금지 등도 지역 사정에 맞게 적절히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중소기업계는 이명박 당선자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뒤쫓길 바라고 있다.

연습뉴스

증권사들 증시 전망 '엉터리'

최근 4년 평균 오차 무려 13.44%

증권사들이 연말이면 앞다퉈 내놓는 이듬해 증시전망치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7개 주요 증권사들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제시한 이듬해 코스피 지수 최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실제 지수 최고치와 평균 13.44%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이들 증권사는 올해 지수가 최고 1,580~1,7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 들어 23일 현재까지 최고 지수는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2,064.85를 기록, 17.95%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시장 전망치를 믿고 주식 매입을 포기한 채 금리 5~6% 수준인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금융자산을 은행 금리보다 3배 이상 많이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 말에도 증권사들은 이듬해 지수가 최고 980에서 1,2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2005년 최고 지수는 1,379.37까지 치솟아 증권사들의 전망치와 평균 20.98%의 오차가 발생했다.

2003년과 2005년에 제시한 이듬해 전망치 역시 실제 지수와 각각 8.73%, 6.11% 차이가 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신증권이 가장 선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증권은 2003년과 2005년에 제시한 이듬해 전망치가 실제 지수 대비 1.49%, 1% 수준까지 근접했다. 미래에셋증권(10.58%), 대우증권(11.68%) 등이 뒤를 이었다.

연습뉴스

이달말까지 명의개서 하세요

12월 결산법인 주주명부 등재해야 배당금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이달 말까지 명의개서를 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31일까지 실물주권·신분증·도장 등을 지참하고 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절차를 밟기 어려운 주주들은 28일까지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기면 해당 증권사가 알아서 명의개서를 처리해준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말한다.

연습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네오개발	[건설/일반사무/생산/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6	062-946-2610
인포드림넷	하나로텔레콤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2000~2200	12/28	062-236-0217
씨시스템즈	[광주]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경력자 모집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31	042-383-6585
한이에스	한이에스주 정규직 영업관리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945-2101
미비이오메드	광주영업소 약국 영업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2/31	062-383-3245
우진엔지니어링	승강기설치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31	010-6254-2655
성진금형	통번역 및 바이어 통화 (영어/일본어 회화 가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955-3727
디디자인포유	CI/BI/편집디자인/포장디자인/AE, 카피라이터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31	062-385-9395
삼성 디지털프라자 금남로점	여경리 / 남.여 판매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31	062-232-9191
명서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사무 및 현장기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2/31	02-2633-8426
마이쿠폰	채널사원(지임기사 포함)을 모집합니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10-3082-8871
초원문고	참고서 판매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01	062-574-7007
고려오토론	중국 상해에 위치한 공장의 생산관리 및 수출입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1/03	062-973-7771
선우기전	건축관련 유망직자 모집	대졸/경력3년	2600~2800	01/03	062-944-820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로또복권 (제264회)			파란복권 (제87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지수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09 16 27 36 41 44	5		1	10억 7조	937442
			2	5억 7조	937441
				7조	937443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1 6개 숫자 일치	1,344,889,200	7	4	1백만	각조 4908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8,112,497	27	5	1만	각조 785
3 5개 숫자 일치	1,498,604	1,047	6	2천	각조 12
4 4개 숫자 일치	62,642	50,096			각조 69
5 3개 숫자 일치	5,000	840,243	7	1천	각조 5
					각조 6